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Divorce and Post-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 선 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성 미 애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Full-time lecturer : Sung, Miai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연구문제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vorce and post-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and explored the sex differences. For this empirical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30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liv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Sep. 23rd to Oct. 20th, 2002.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dealt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and other sca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men and women experienced a similar level of pre-divorce conflicts, women were more likely to want to divorce. Second, although women had wors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and more

Corresponding Author: Sung, Miai,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 sung-dong, Chongr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8 Fax: 82-2-3668-4188 E-mail: eliza_s@kno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 21 신규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연구는 두뇌한국 21 신규사업 과제인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적응과정-아동, 청소년, 이혼남녀의 적응 지원 방안 모색-"의 일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BK21에 제시되어 있음.

difficult problems than men after divorce, women more readily accepted their divorce reality than men. Divorce was not the best but the second best way to escape from a bad marriage for women. The results of the current resear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marital preparation and divorce adjustment programs.

주제어(Key Words): 20, 30대 이혼 남녀(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이혼 후 적응(post-divorce adjustment),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ward ex-spouse), 이혼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divorce), 의미있는 타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significant others' attitude toward divorc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부모역할만족도(parent role satisfaction)

I. 문제제기

결혼의 목적이 가문의 영속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결혼의 안정성은 결혼의 질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 염원과 무관하게 이혼을 통해 결혼이 해체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Berger와 Kellner(1964, 6: 권희완, 1992, 35에서 재인용)가 언급한 것처럼, 예전에는 이미 현존하는 사회적 세계에 새로운 결혼이 단지 복잡성을 첨가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갈 작은 세계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는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는 정보화 사회, 후기 산업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나 의식구조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근대적 가족 가치관이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남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결혼이 이혼으로 해체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연구(권희완, 1992, 66-67)에 따르면, 아내는 인격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남편들은 자녀 양육이나 자녀교육기를 막론하고 아내를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자녀교육을 잘 시키는 역할 수행의 도구적인 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살펴본 연구(박민자, 1992, 76-77)에서도 비교적 연령이 젊은 20, 30대 아내들은

‘공동 소유권’, ‘공평한 경제권’, ‘공평한 재산관리’, ‘각기 직업을 갖고 벌어서 쓰는 부부’ 등을 부부관계의 평등성으로 보았으며, 20대 아내들은 가사노동 부담을 많이 강조하고 30대 아내들은 대화 또는 의사교환을 동등하게 하는 부부, 마음 편하게 대화하는 부부를 부부관계의 평등성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적어도 젊은 기혼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측면은 인격적 존중, 평등한 관계 등 어느 정도의 우애적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차이가 결혼생활에서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당사자들이 새로운 결혼의 실재를 구성하기보다 기존의 세계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이러한 과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혼관계가 이혼으로 해체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를 살펴보면, 조이혼율이 1970년에는 0.4건에서 2002년에는 3.0건으로, 불과 30여 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통계청, 2002)하였다. 그리고 결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져 2002년 현재 평균 이혼 연령은 여성 37.1세, 남성 4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혼 전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을 동거하고 이혼한 경우도 5.1%, 1년에서 5년 미만이 26.9%, 5년에서 10년 미만이 23.2%, 10년에서 15년 미만이 19.4%, 15년에서 20년 미만이 14.7%, 20년 이상도 15.7%로 비교적 전 연령층에서 이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 10.9년을 동거한 뒤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은 결혼 초기 적응에 실패한 젊은 부부들이 비교적 쉽게 선택하는 결정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문제 있는 결혼생활을 해결하는 하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 이전에 동거한 기간이 평균 10.9년으로 긴 것을 보면, 이제는 단순한 생활사건의 하나로 이혼을 볼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혼 후 적응에도 학문적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이혼자의 44.7%가 부부간 성격차이 때문에 헤어졌고, 그 외 가족간 불화로 이혼한 경우가 14.4%, 경제문제로 이혼한 경우가 13.6%였으며, 배우자의 부정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때문에 이혼한 경우는 각각 8.6%, 4.8%였다(통계청, 2003).

이러한 이혼 관련 실태는 이혼 사유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연구(이현승, 1999)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이혼 사유가 보다 결혼관계의 근본을 헤치는 심각한 문제나 부양 문제 같은 수단적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성격 부조화나 생활양식 부조화 등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소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이는 이혼 추세 중 하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해체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69.7%(통계청, 2003)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나 부부관계에 대해 갖는 기대가 남녀별로 상이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여성인 경우가 66.8%로 과반을 넘고 있다는 분석(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 2001)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결혼관계에 대해 갖는 기대가 성별로 차이가 나면서 가부장제의 잔재 하에서 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개연성이 큰 여성을 중심으로 문제 있는 결혼생활을 이혼을 통해서라도 청산하려는 심경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이혼 실

태를 종합해 보면, 이혼자 집단의 다양화, 이혼 사유의 다양화, 여성이 제기하는 이혼 건수의 증가, 자녀가 있는 이혼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곧, 현 상황에서는 이혼에 이르는 길도 복잡하며, 나아가 이혼 후 적응 과정도 힘들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혼 실태에 관한 밑그림을 갖고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혼자 집단 중에서 20, 30대 이혼남녀를 중심으로,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이혼 후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생애과정에서 볼 때 어떤 연령층에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적응과정이 다양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 30대 이혼이 전체 이혼의 57.8%를 차지하고 있는 등(통계청, 2003), 이 연령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대상으로는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김성희, 2003;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처럼, 20, 30대는 이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갖고서 본인이 선택한 이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서구와 다른 삶의 맥락을 갖는 우리나라의 이혼 경향 속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20,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 30대 이혼 남녀의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경향을 이끌고 갈 주축인 동시에 이혼 후의 기간이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길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의 이혼 및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서 성별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들(김성희, 2003; 이재경, 2000;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외, 2003)에 기초하여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결혼준비교육이나 이혼 예방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보다 다양한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혼자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실화 작업에도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중심으로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성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과정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실태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살펴보는 조사 연구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이혼자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최대한 통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 이혼율의 과반을 차지하는 20, 30대 이혼 남녀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혼한 지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전의 이혼 관련 선행연구들(노영주, 2001; 문현숙, 김득성, 2000; 박찬미, 서병숙, 1987; 성경현, 1999; 이재경, 2000;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1993; 한경혜, 김영희, 1994 등)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잔존해 있는 가족구조에서 열악한 지위를 점하는 여성의 결혼생활 및 이혼 경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연구에

서는 한국의 실태에 비추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는 중요할 것이며, 그러한 성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남녀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에 비해 지역에 상관없이 비교적 단일한 가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가족관련 가치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지역 차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옥선화 외, 2001)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삶의 맥락이 달라지며, 이는 이혼자의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생활 속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 이혼 남녀로 한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 30대 이혼 남녀 총 22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연구대상자에 해당되는 이혼자를 주위에서 소개받은 뒤, 이 이혼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다음 조사대상자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별 면접의 형식으로 예비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22명의 자료를 한 문항의 누락 없이 모두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본 내용은 서구에서 개발된 질문 척도가 한국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과, 이혼자들의 이혼 후 삶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태조사 문항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다년간 질문지 조사를 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들이 직접 한문항도 빠짐없이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조

사원이 눈덩이 표집을 통해 접촉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졌다.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 9부를 제외한 최종 23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¹⁾

1)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적응은 이혼관련 선행연구들(한경혜, 1993; 허정원, 옥선화, 1998; Kitson & Raschke, 1981; Kitson & Morgan, 1990; Spanier & Castro, 1979 등)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이혼과 관련된 '상실에 대한 적응'과 '새로 획득한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으로서,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독립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Kitson(1982, 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Wang과 Amato(2000)가 개발한 이혼에 대한 만족도와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5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부터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 일반적 영역에서 적응도가 높다.

2)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이전의 결혼과 전 배우자에게 구속되어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재조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Wang과 Amato(2000)가 사용한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척도 4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애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정의한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대립되게 제시한 총 12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에서부터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은 이혼관련 선행연구들(이종원, 2002; 최규

련, 1994)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이혼 전 부부가 서로의 자원이거나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오해나 상호이해의 결여로 인해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긴장으로 정의하였다.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척도는 최규련(1994)의 부부갈등척도를 본 조사 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5) 건강: 건강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최연실, 1996; McCubbin & Comeau, 1987)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건강 척도는 Morem, Malia와 Garrison(1988)이 개발한 가족건강상태 척도(Family Health Status Inventory: FHSI)를 번안하여 본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 문항은 총 16문항이다. 척도상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6)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최연실, 1996; McCubbin & Patterson, 1988; Pobertson, Eller, & Skinner, 1991)에서 사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McCubbin, Olson과 Larsen(1987)이 제작한 가족위기에 대한 개인 평가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F-COPES)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최연실(1996)이 구성한 척도를 본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1) 지면 관계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의 구성을 한 곳에 설명하였다.

7) 가정경제불만족도: 가정경제불만족도는 성미에(1999)의 정의에 따라서, 현재 자신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불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8)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관련 선행연구들(김성희, 2003; 옥선화 외, 2000; 한경혜 외, 2002, 2003)에 기초해, 이혼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 및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척도는 상이한 배경의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총 10 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자 자신의 행동이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 사람들이 이혼자의 이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이혼자에게 의미있는 타자가 되는 주위 사람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인정하는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는지, 이혼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재결합하기를 바라는지, 전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총 5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0)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선행연구들(서혜영, 이숙현, 1999; 현온강, 조복희, 1994)의 정의에 기초해 자녀의 존재 자체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보람, 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현온강,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 역할 만족도 척도 중 일반적 부모 역할 만족도 영역과 부모-자녀 관계 영역의 문항을 본 조사 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5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1)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은 선행연구들(Bott,

1971; Ell, 1984; Milard, 1988 등)의 정의에 기초해 이혼한 남녀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혼 후 친정(본가)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 시부모(장인, 장모)와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전 배우자의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화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존재 유무를 체크한 뒤 아주 멀어졌다 1점부터 아주 가까워졌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그 관계는 이혼 후 더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

4. 척도의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인이 그 내용을 검증한 뒤 구성된 것으로,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혼 후 일반적 적응 척도는 .79,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척도는 .77, 생활만족도 척도는 .93,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척도는 .80, 건강 척도는 .79, 사회적 지원 척도는 .84, 가정경제불만족도 척도는 .88,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77,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61, 부모 역할 만족도 척도는 .88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5.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는데,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χ^2 검증, t 검증을 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20, 30대 이혼상태에 있는 남녀로, 연령은 남녀 모두 대다수인 86.8%, 79.3%가 30대이

며,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34.3세, 여성의 경우 34.2세로 거의 비슷하였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이 64.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과반수인 60.9%가 고졸이었다. 직업의 경우 남성은 사무직 43.0%, 자영업 23.7%, 생산 기술직 17.5% 순서였으며, 여성은 영업서비스직 39.6%, 사무직 25.9%, 자영업 18.1% 순서였다. 월소득은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56.1%가 200~300만원 미만이며 평균 월소득은 232만원이었고, 여성은 과반수인 52.6%가 100~200만원 미만이며 평균 월소득은 161만원이었다. 이 수준은 2002년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소득(통계청, 2003)인 2,792,400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 경제가 양분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 수준은 여성이 더 함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남성의 경우 절대 다수인 72.8%가 무교였고, 여성은 45.7%가 무교, 30.1%가 기독교였다. 주거형태는 남성의 경우 43.9%가 전세에 살고 있었고, 자가를 소유한 경우는 34.2%, 부모님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15.8%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과반수인 64.6%가 전세, 자가 19.0%, 부모님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7.8%, 월세인 경우가 6.0% 순이었다. 이혼 남녀 중 자녀²⁾가 있는 경우가 과반수여서 남성은 71.9%, 여성은 69.8%가 자녀가 있었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많아 남성은 65.9%가 1명, 여성은 55.5%가 1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자녀수는 남성은 1.3명, 여성은 1.5명이었다. 자녀는 남성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이 46.8%, 미취학이 44.0%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재학이 56.0%로 과반수였으며, 미취학이 22.9%였다.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과정 실태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과정

20, 30대 이혼 남녀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결과처럼, 평균 1년 3개월 정도의 교제기간을 가진 뒤 결혼을 하였으며, 이혼 전까지 평균 5년 9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에 이혼한 경우가 전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특성	집단	전체	남성	여성
연령	20~29세	39(17.0)	15(13.2)	24(20.7)
	30~39세	191(83.0)	99(86.8)	92(79.3)
		230(100.0)	114(100.0)	116(100.0)
	평균연령	34.3세	34.3세	34.2세
교육 수준	중졸	1(0.4)	-	1(0.9)
	고졸	111(48.5)	41(36.0)	70(60.9)
	대졸(전문대졸 포함)	117(51.1)	73(64.0)	44(38.2)
		229(100.0)	114(100.0)	115(100.0)
직업	전문·관리직	8(3.5)	3(2.6)	5(4.3)
	사무직	79(34.3)	49(43.0)	30(25.9)
	생산·기술직	22(9.6)	20(17.5)	2(1.8)
	영업·서비스직	61(26.5)	15(13.2)	46(39.6)
	자영업	48(20.9)	27(23.7)	21(18.1)
	전업주부	5(2.2)	-	5(4.3)
	무직	7(3.0)	-	7(6.0)
		230(100.0)	114(100.0)	116(100.0)
소득	소득없음	9(3.9)	-	9(7.9)
	100만원 미만	1(0.4)	-	1(0.9)
	100~200만원 미만	83(36.4)	23(20.2)	60(52.6)
	200~300만원 미만	100(43.9)	64(56.1)	36(31.6)
	300만원 이상	35(15.4)	27(23.7)	8(7.0)
		228(100.0)	114(100.0)	114(100.0)
	평균 소득	197만원	233만원	161만원
종교	기독교	51(22.2)	16(14.0)	35(30.1)
	천주교	18(7.8)	4(3.5)	14(12.1)
	불교	25(10.9)	11(9.7)	14(12.1)
	무교	136(59.1)	83(72.8)	53(45.7)
			230(100.0)	114(100.0)
주거 형태	자가	61(26.5)	39(34.2)	22(19.0)
	전세	125(54.3)	50(43.9)	75(64.6)
	월세	14(6.1)	7(6.1)	7(6.0)
	부모님집	27(11.7)	18(15.8)	9(7.8)
	친척집	1(0.4)	-	1(0.9)
	기타	2(0.9)	-	2(1.7)
		230(100.0)	114(100.0)	116(100.0)
자녀수	무	67(29.1)	32(28.1)	35(30.2)
	1명	99(60.7)	54(65.9)	45(55.5)
	2명	62(38.0)	28(34.1)	34(42.0)
	3명	2(1.2)	-	2(2.5)
			230(100.0)	114(100.0)
	평균 자녀수	1.4명	1.3명	1.5명
자녀의 학령	미취학	73(33.5)	48(44.0)	25(22.9)
	초등학교 재학	112(51.4)	51(46.8)	61(56.0)
	중학교 재학	11(5.1)	10(9.2)	1(0.9)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9(8.7)	-	19(17.5)
	고등학교 재학	2(0.9)	-	2(1.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0.4)	-	1(0.9)
		218(100.0)	109(100.0)	109(100.0)

이혼자 중 73.1%를 차지한다는 통계청의 결과(2002)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이 결과는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한 후에 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이혼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혼 과정을 살펴보면, 20, 30대 이혼 남녀는 이혼의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별거를 평균 2개월 정도, 1회 하였으며, 지금은 이혼 한 지 2년 정도 지났다.

이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수준을 살펴보면,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이 말해주듯 이혼 전 과정동안 전 배우자와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전 1년 동안 경험한 생활사건은 64 문항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혼 전 1년이라는 시점이 말해주듯이 남녀 모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81.7%)',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하기가 어려워졌다(71.4%)', '시가나 친정 등 친척과의 갈등이 커졌다(63.9%)', '집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졌다(63.3%)',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빚을 지게 되었다(57.4%)',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52.6%)' 등의 생활사건을 주로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20, 30대 이혼 남녀는 성별과 무관

하게 이혼 전 부부 및 친인척간 극심한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 내에서나 바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혼 후 적응 과정을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연구(문현숙, 김득성, 2000)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보다 이혼 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한 결과를 근거로 추론해 보면, 이러한 생활사건이 이혼 전 1년 동안 극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이혼 당시 생활수준이 이혼 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를 살펴본 문항에서 성별로 차이($t=4.18, p<.001$)를 보여, 남성의 경우 보통 정도의 생활수준이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여성들이 이혼 후에 기혼 여성이나 이혼 남성에게 비해 만성적 재정 갈등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노영주, 2001; 문현숙, 김득성, 2000; 박찬미, 서병숙, 1987; 성정현, 1999; 이재경, 2000; 장혜

2) 여기서 언급한 자녀는 양육 유무와 무관하게 출산한 자녀 모두를 말함.

<표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과정 실태 및 성별차이 (N=230, 남성=114, 여성=116)

특 성	척도점수범위(중간값)	전체 평균(SD)	성 별	평 균	SD	t
결혼전 교제기간 (개월)	-	15.35(11.13)	남성	15.43	10.91	.11
			여성	15.27	11.39	
결혼지속기간 (개월)	-	69.34(45.89)	남성	63.60	42.67	-1.90
			여성	74.98	48.36	
별거기간 (개월)	-	2.88(4.56)	남성	2.42	3.51	-1.52
			여성	3.33	5.38	
별거횟수 (회)	-	.89(1.91)	남성	.97	2.40	.68
			여성	.80	1.25	
이혼후 기간 (개월)	-	24.84(13.61)	남성	23.50	13.38	-1.49
			여성	26.16	13.76	
이혼전 전 배우자와의 갈등	21-105 (63)	75.22(8.78)	남성	75.61	8.96	.39
			여성	75.14	8.79	
이혼 전 생활사건	0-64 (32)	16.41(8.57)	남성	16.46	9.32	.23
			여성	16.20	7.71	
이혼당시 생활수준	1-5 (3)	3.07(.76)	남성	3.26	.67	4.18***
			여성	2.84	.78	

*** $p<.001$

경, 민가영, 2002; 한경혜, 1993; 한경혜, 김영희, 1994; Fisher et al., 1998; Ross, 1995; Shapiro, 1996 등)의 결과가 20, 30대 이혼 여성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이혼 후 전개될 생활의 어려움도 생각하지만,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20, 30대의 이혼 남녀의 경우 극심한 갈등 속에서 부부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볼 여유 없이 바로 이혼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혼 후 전개될 경제적 어려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결혼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이혼을 차선책으로 택한 맥락이 예측되기도 한다

이혼 제기자는 남성의 과반수인 55.3%는 본인, 28.9%는 전 배우자, 14.0%는 부부가 함께라고 밝혔으며, 여성의 경우 절대 다수인 75.0%가 본인, 12.9%가 부부가 함께, 그리고 12.1%가 전 배우자라

고 밝혔는데, 성별로 차이($\chi^2=13.54, p<.01$)가 있어, 이혼여성이 이혼남성보다 본인이 이혼을 제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결혼생활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경우에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여성들 편에서 이혼을 통해 벗어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이혼 후 적응과정을 살펴본 연구들(노영주, 2001; 문현숙, 김득성, 2000; Acock & Demo, 1994)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1순위가 성격차이(53.0%)였으며, 2순위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상실(21.7%), 3순위는 시가/처가 식구 등 친척과의 갈등(15.7%)으로, 20, 30대에서는 부부간 갈등이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인 인척간 갈등이 여전히 부부관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사유에 대한 연구들(이재경, 2000; 이현

<표 2> 계속

특성	응답범주	전체	남성	여성	χ^2
이혼제기자	본인	150(65.2)	63(55.3)	87(75.0)	13.54**
	전 배우자	47(20.4)	33(28.9)	14(12.1)	
	부부가 함께	31(13.5)	16(14.0)	15(12.9)	
	본인 부모	2(.9)	2(1.8)	0(0.0)	
	합계	230(100.0)	114(100.0)	116(100.0)	
이혼형태	재판이혼	24(10.5)	6(5.3)	18(15.5)	6.36*
	협의이혼	205(89.5)	107(94.7)	98(84.5)	
	합계	229(100.0)	113(100.0)	116(100.0)	
이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본인	130(59.6)	71(62.3)	66(56.9)	3.80
	전 배우자	61(26.5)	32(28.1)	29(25.0)	
	본인 부모	15(6.5)	6(5.3)	9(7.8)	
	친구	17(7.4)	5(4.4)	12(10.3)	
	합계	230(100.0)	114(100.0)	116(100.0)	
이혼당시직업유무	유	162(70.4)	111(97.4)	51(44.0)	78.74***
	무	68(29.6)	3(2.6)	65(56.0)	
	합계	230(100.0)	114(100.0)	116(100.0)	
이혼당시직업	전문·관리·사무직	80(49.7)	55(50.0)	25(49.0)	.01
	생산·기술·영업·서비스직, 자영업	81(50.3)	55(50.0)	26(51.0)	
	합계	161(100.0)	110(100.0)	51(100.0)	

송, 1999)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거에는 외도, 폭행과 같은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나 경제적 문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함 등과 같은 수단적 사유가 이혼 사유의 주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성격 부조화, 생활양식 부조화 등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소로 이혼 사유가 다양화되었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 30대 결혼에서는 부부관계가 정서적, 인격적 면에서 많이 평가되며, 이러한 측면에 토대를 둔 부부간 결속력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혼형태는 대다수인 남성 94.7%, 여성 84.5%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성별로 차이($\chi^2=6.36, p<.05$)가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혼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남녀 모두 과반수인 59.6%가 본인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26.5%가 전 배우자라고 밝혔다. 그 외 소수의 사람인 각 7.4%, 6.5%는 친구와 본인 부모라고 하였다.

이혼 당시 남성은 97.4%, 여성은 44.0%가 직업이 있었으나, 성별로 차이($\chi^2=78.74, p<.001$)를 보여, 이혼 남성이 이혼 여성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혼 당시 직업은 반수인 50.3%가 생산, 기술, 영업서비스직,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49.7%가 전문, 관리,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0, 30대 이혼 남녀 과반수인 68.1%가 하지 않았으며, 11.4%는 재산분할에 대

한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 이혼 사례를 분석한 연구(성정현 외, 2001)에서도 재산분할은 위자료에 비해 재산 기여에 대한 권리 행사라는 점과, 이혼 후 생계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처럼, 20, 30대 이혼 남녀도 재산분할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위자료는 남성의 경우 55.3%가 주거나 줄 예정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50.0%가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자료를 주고 받는 대상에서 성별로 차이($\chi^2=122.02, p<.001$)를 보여, 아직까지 위자료는 남성 편에서 여성에게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실태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실태

이혼의 과정이 힘들어서인지 <표 3>에 제시된 결과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과반수인 55.7%는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혼 남녀 모두 절대 다수인 90.0%가 전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이혼 관련 연구들(최재석, 1981: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김영희, 1994: Arditti & Madden-Derdith, 1993; Furstenbug & Nord, 1985 등)에서 밝혀진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표 2> 계속

특성	응답범주	전체	빈도(%)		χ^2
			남성	여성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하였음	47(20.5)	21(18.4)	26(22.6)	.91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음	156(68.1)	81(71.1)	75(65.2)	
	논의 자체가 없었음	26(11.4)	12(10.5)	14(12.2)	
	합계	229(100.0)	114(100.0)	115(100.0)	
위자료	받거나 받을 예정	62(27.0)	4(3.5)	58(50.0)	122.02***
	주거나 줄 예정	69(30.0)	63(55.3)	6(5.2)	
	논의가 없었음	33(14.3)	28(24.6)	5(4.3)	
	주고 받지 않았음	66(28.7)	19(16.7)	47(40.5)	
	합계	230(100.0)	114(100.0)	116(100.0)	

* $p<.05$ *** $p<.001$

〈표 3〉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 실태 및 성별 차이

특성	집단	전체	남성	여성	χ^2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접촉 여부	있 다	102(44.3)	50(43.9)	52(44.8)	22
	없 다	128(55.7)	64(56.1)	64(55.2)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재결합가능성	있 다	22(10.0)	14(12.7)	8(7.2)	1.88
	없 다	199(90.0)	96(87.3)	103(92.8)	
	합 계	221(100.0)	110(100.0)	111(100.0)	
이혼 후 이사여부	했 다	178(77.4)	77(67.5)	101(87.1)	12.58***
	안 했 다	52(22.6)	37(32.5)	15(12.9)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현재 집안일 담당자	본 인	149(64.8)	54(47.4)	95(81.9)	31.44***
	어머니	69(30.0)	53(46.5)	16(13.8)	
	기 타	12(5.2)	7(6.1)	5(4.3)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이성고제여부	하고 있다	44(19.3)	27(23.7)	17(14.9)	2.82
	하고 있지 않다	184(80.7)	87(76.3)	97(85.1)	
	합 계	228(100.0)	114(100.0)	114(100.0)	
재혼의사	있 다	106(46.3)	75(65.8)	31(27.0)	34.72***
	없 다	123(53.7)	39(34.2)	84(73.0)	
	합 계	229(100.0)	114(100.0)	115(100.0)	

전 배우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문화권을 불문하고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67.5%, 여성 87.1%가 이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성별로 차이($\chi^2=12.58$, $p<.001$)를 보여,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이혼 전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한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이혼을 한 뒤 이사를 한 이유는, 이혼 남성의 경우 1순위로 꼽은 것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6.4%)였으며, 그 다음 2순위가 '주위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31.6%), 그리고 3순위가 '배우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25.3%)라고 밝혔다.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도 이혼 후 이사를 한 1순위와 2순위는 이혼 남성과 동일하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7.6%),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29.7%)라고 밝혔으나 3순위는 이혼 남성과 달리 '집 값을 고려해서' (29.0%)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혼을 하면 가계 수준이 양분되기 때문에 이혼 남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

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성희, 2003;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외, 2003 등)과는 무관하게 20, 30대 이혼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낙인화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며, 주거지의 이전을 통해 피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의 경우 전 배우자의 이혼제기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흔적을 지우면서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주거 이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집안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혼 남성의 경우 본인 47.4%, 어머니 4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절대 다수인 81.9%가 본인, 13.8%가 어머니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의 경우 본인(47.4%)과 어머니(46.5%)가 담당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혼 여성의 경우 대다수(81.9%)가 본인이 집안 일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chi^2=31.44$, $p<.001$).

현재 이혼 남녀는 대다수인 80.7%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재혼 의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65.8%가 재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73.0%는 재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chi^2=34.72, p<.001$).

2) 20, 30대 이혼 남녀가 지각한 이혼 후 생활 변화 정도

<표 4>에 제시된 내용처럼, 이혼 후 경험한 생활 변화를 경제생활, 정서생활, 건강, 자녀양육상황, 가

족관계, 친인척 관계,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건강(49.1%), 자녀양육상황(49.7%), 가족관계(47.8%), 대인관계(60.4%)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절반(42.6%)에 가까운 사람이 나빠졌다고 밝혔고, 친인척 관계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경우(46.7%)와 나빠졌다(46.7%)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 후 지각한 경제생활의 변화 정도에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65.8%가 이혼 전과 이혼 후를 비교해 볼 때 경제생활에서는

<표 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변화 정도 및 성별차이

빈도(%)

특 성	응답범주	전 체	남 성	여 성	χ^2
경제생활 변화정도	나빠졌다	93(40.0)	33(28.9)	60(51.7)	24.45***
	변함없다	114(49.6)	75(65.8)	39(33.6)	
	좋아졌다	23(10.0)	6(5.3)	17(14.7)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정서생활 변화정도	나빠졌다	98(42.6)	55(48.2)	43(37.1)	3.52
	변함없다	60(26.1)	29(25.5)	31(26.7)	
	좋아졌다	72(31.3)	30(26.3)	42(36.2)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건강 변화정도	나빠졌다	66(28.7)	29(25.4)	37(31.9)	9.27*
	변함없다	113(49.1)	67(58.8)	46(39.7)	
	좋아졌다	51(22.2)	18(15.8)	33(28.4)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자녀양육 변화정도	나빠졌다	82(42.1)	48(45.7)	34(37.8)	4.02
	변함없다	97(49.7)	52(49.5)	45(50.0)	
	좋아졌다	16(8.2)	5(4.8)	11(12.2)	
	합 계	195(100.0)	105(100.0)	90(100.0)	
가족관계 변화정도	나빠졌다	89(38.7)	42(36.9)	47(40.5)	.33
	변함없다	110(47.8)	56(49.1)	54(46.6)	
	좋아졌다	31(13.5)	16(14.0)	15(12.9)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친인척관계 변화정도	나빠졌다	107(46.7)	48(42.5)	59(50.9)	2.84
	변함없다	107(46.7)	55(48.7)	52(44.8)	
	좋아졌다	15(6.6)	10(8.8)	5(4.3)	
	합 계	229(100.0)	113(100.0)	116(100.0)	
대인관계 변화정도	나빠졌다	74(32.2)	32(28.1)	42(36.2)	5.84
	변함없다	139(60.4)	77(67.5)	62(53.4)	
	좋아졌다	17(7.4)	5(4.4)	12(10.4)	
	합 계	230(100.0)	114(100.0)	116(100.0)	

*p<.05 ***p<.001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여성의 경우 51.7%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chi^2=24.45, p<.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보고(한경혜, 1993; Shapiro, 1996; Wang & Amato, 2000)도 있지만, 여성 노동력의 가치가 남성의 60% 내외 수준이며, 여성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여성이 이혼 후 경제생활의 하락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반적인 친인척 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변함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동일하거나 변함없다고 지각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이혼으로 인해서 친정(본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표 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으로 인한 사회관계망의 변화 및 성별차이

특성	전체 평균 (SD)	성별	N	M (SD)	t
1. 친정(본가) 아버지와의 관계	2.83	남성	92	2.82(.66)	-.25
	.77	여성	84	2.85(.88)	
2. 친정(본가) 어머니와의 관계	3.02	남성	107	2.99(.67)	-.62
	.78	여성	103	3.06(.88)	
3. 친정(본가) 형제들과의 관계	2.89	남성	113	2.81(.65)	-1.73
	.74	여성	115	2.97(.81)	
4. 시아버지(장인)와의 관계	1.22	남성	73	1.32(.62)	2.45*
	.50	여성	71	1.11(.32)	
5. 시어머니(장모)와의 관계	1.20	남성	102	1.26(.53)	2.25*
	.45	여성	97	1.12(.33)	
6. 시가(처가) 형제들과의 관계	1.32	남성	107	1.41(.66)	2.19*
	.59	여성	113	1.24(.50)	
7. 친구들과의 관계	2.70	남성	112	2.71(.67)	.18
	.68	여성	116	2.69(.69)	
8. 전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	1.60	남성	91	1.79(.82)	3.42**
	.79	여성	86	1.40(.71)	
9. 이웃과의 관계	2.44	남성	101	2.53(.59)	1.93
	.66	여성	111	2.36(.71)	
10. 직장 동료와의 관계	2.81	남성	112	2.79(.52)	-.36
	.51	여성	84	2.82(.49)	

* $p<.05$ ** $p<.01$

떨어졌다고 인식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척과의 관계, 즉 시어머니(장모)와의 관계, 시아버지(장인)와의 관계, 시가(처가) 형제들과의 관계 및 전 배우자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전 1년 동안 친척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혼의 사유 중 3순위로 언급된 것이 친척과의 갈등이라고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혼 후 사회관계망 변화에 관한 인식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들이 시아버지($t=2.45, p<.05$), 시어머니($t=2.25, p<.05$), 시가 형제($t=2.19, p<.05$), 전 배우자의 친구들과의 관계($t=3.42, p<.01$)가 아주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직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여성이 더 많이 적응해야 하는 한국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동안 친척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20, 30대 이혼 남녀의 자녀 관련 생활 실태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처럼,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 대다수인 76.7%는 본인이 양육권자였으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과반수인 54.0%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양육권을 결정하였다.

본인이 집에 없을 때에는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66.7%가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3%는 보육 및 교육기간에 위탁하고, 15.0%는 돌보는 사람없이 자녀를 혼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과반수인 54.7%가 본인이 집에 없을 때는 자녀를 혼자 두며, 26.6%는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18.7%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본인이 집에 없을 때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가 자녀를 맡아주는 반면,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두는 비율이 높았다($\chi^2=31.63, p<.001$).

〈표 6〉 20, 30대 이혼 남녀의 자녀 관련 생활실태 및 성별차이

특 성	응답범주	전 체	남 성	여 성	빈도(%)
양육권자	본 인	125(76.7)	62(75.6)	63(77.8)	.11
	전 배우자	38(23.3)	20(24.4)	18(22.2)	
	합 계	163(100.0)	82(100.0)	81(100.0)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본 인	125(79.1)	60(75.9)	65(82.3)	.96
	전 배우자	33(20.9)	19(24.1)	14(17.7)	
	합 계	158(100.0)	79(100.0)	81(100.0)	
양육권 결정시 어려움	있었다	75(46.0)	35(42.7)	40(49.4)	.74
	없었다	88(54.0)	47(57.3)	41(50.6)	
	합 계	163(100.0)	82(100.0)	81(100.0)	
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 (본인이 집에 없을 때)	어머니	52(41.9)	40(66.7)	12(18.7)	31.63***
	보육 및 교육기관	28(22.6)	11(18.3)	17(26.6)	
	없 다	44(35.5)	9(15.0)	35(54.7)	
	합 계	124(100.0)	60(100.0)	64(100.0)	
자녀문제 의의정도	1년에 여러번	17(10.5)	9(11.0)	8(10.0)	.38
	특별한 일 있을 때	71(43.8)	34(41.5)	37(46.3)	
	전혀 하지 않는다	74(45.7)	39(47.5)	35(43.7)	
	합 계	162(100.0)	82(100.0)	80(100.0)	
전 배우자는 좋은 부모였다	그렇지 않다	52(32.1)	25(30.5)	27(33.8)	1.75
	보통이다	66(40.7)	31(37.8)	35(43.7)	
	그렇다	44(27.2)	26(31.7)	18(22.5)	
	합 계	162(100.0)	82(100.0)	80(100.0)	
지금도 전 배우자는 좋은 부모이다	그렇지 않다	51(31.5)	22(26.8)	29(36.2)	2.32
	보통이다	74(45.7)	38(46.4)	36(45.0)	
	그렇다	37(22.8)	22(26.8)	15(18.8)	
	합 계	162(100.0)	82(100.0)	80(100.0)	
특 성	전체 평균(SD)	성 별	N	M(SD)	t
부모역할만족도 (중간값 33점)	41.70	남성	81	41.20(4.63)	-1.20
	5.36	여성	80	42.21(6.00)	

*** p<.001

이혼 후에는 자녀 문제를 두고 전 배우자와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5.7%가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 전혀 의논을 하지 않았으며, 43.8%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 배우자와 의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이 부부간의 인연은 해소시켜도 부모-자녀간 친륜을 끊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간 양육이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Furstenburg & Nord, 1985; Seltzer, 1991)가

20, 30대 이혼 남녀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문제를 두고 전 배우자와 극히 제한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20, 30대 이혼 남녀도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거의 협조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의 자녀가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으로 볼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나 배우자 역할과는 무관하게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였는지 살펴본

결과, 40.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3에 해당되는 32.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도 거의 지속되어, 45.7%는 지금도 전 배우자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인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나 1/3에 해당되는 3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20, 30대 이혼 남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역할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나는 자녀가 있다는 그 자체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평균값: 3.94점, 표준편차: .79점), '나는 자녀가 나에게 애정표현을 할 때 기뻐다'(평균값: 3.91점, 표준편차: .58점), '나는 자녀로 인해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평균값: 3.91점, 표준편차: .82점) 등의 문항, 즉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실태

이혼 후 적응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표 7>에 제시된 결과처럼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이나 이혼 여성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의 불만족도를 보였으나 여성이 지각하는 불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5, p<.05$). 즉 이혼 후 현재의 생활비 수준이나 소비, 재산, 빚, 여유자금 수준에서 여성이 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노영주, 2001; 문현숙, 김득성, 2000; 박찬미, 서병숙, 1987; 성정현, 1999; 이재경, 2000;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1993; 한경혜, 김영희, 1994; Fisher et al., 1998; Ross, 1995; Shapiro, 1996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결과로, 여성 노동력의 가치가 남성에 비해 평가 절하되는 상황에서는 이혼과 더불어 대다수 여성들이 마주치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면, 이혼 전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었고, 또한 이혼의 주된 사유로 부부간 관계 문제이며, 이혼 후 재결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모두

<표 7>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실태 및 성별차이

특성	척도점수범위(중간값)	전체 평균(SD)	성별	평균	SD	t
가정경제 불만족도	5-25 (15)	16.51(3.37)	남성(114)	15.95	2.79	-2.55*
			여성(115)	17.07	3.79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4-20 (12)	10.75(2.70)	남성(114)	11.01	2.37	-1.44
			여성(116)	10.50	2.98	
이혼에 대한 태도	10-50 (30)	36.64(4.80)	남성(114)	35.73	4.65	-2.90**
			여성(115)	37.54	4.79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5-25 (15)	16.47(2.58)	남성(114)	15.92	2.28	-3.24**
			여성(116)	17.01	2.75	
사회적 지원	10-50 (30)	29.11(6.23)	남성(114)	28.40	5.71	-1.71
			여성(116)	29.80	6.66	
생활만족도	12-60 (36)	34.06(8.32)	남성(114)	33.81	7.01	-.45
			여성(116)	34.30	9.46	
건강	16-80 (48)	50.56(9.32)	남성(114)	49.18	8.69	-2.24*
			여성(116)	51.91	9.76	
이혼 후 적응	5-25 (15)	15.08(3.12)	남성(114)	14.62	2.88	-2.23*
			여성(116)	15.53	3.30	

* $p<.05$ ** $p<.01$

전 배우자에 대해 애착하지 않고 있었다.

일련의 이혼 과정과 이혼의 연장선상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에 대해서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t=-2.90, p<.01$). 이러한 결과는 이혼에 대한 태도 연구(김성희, 2003; 이재경, 2000;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외, 2003)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가부장제가 잔존해 있는 가족내에서 열악한 지위를 접하는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을 타개하는 차선책으로 이혼을 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미있는 타자들이 본인의 이혼에 대해 남녀 모두 수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 여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t=-3.24, p<.01$). 이러한 결과는 이혼 여성이 주로 이혼을 제기했다는 앞서 밝힌 사실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20, 30대 이혼 여성의 경우 사회적 낙인만 없으면 이혼이 하나의 해방도 될 수 있다는 심층 연구 결과들(노영주, 2001; 옥선화, 성미애, 이재림, 2002)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이혼 후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등 다양한 생활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모두 사회적 지원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20, 30대 이혼 남녀는 힘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회관계망의 축소, 경제상태의 변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탓에 이혼 후 현재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즉 조금은 생활이 즐겁다기보다는 괴롭고(평균값: 2.74점, 표준편차: .83점), 충만하다기보다는 공허하고(평균값: 2.44점, 표준편차: .92점), 보람 있다기보다는 실망스럽고(평균값: 2.73점, 표준편차: .88점), 재미있다기보다는 지루하고(평균값: 2.73점, 표준편차: .93점) 희망차다기보다는 좌절스럽고(평균값: 2.73점, 표준편차: .95점), 친구가 많다기보다는 외롭고(평균값: 2.63점, 표준편차: .98점),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하고(평균값: 2.88점, 표준편차: .83점),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평균값: 2.86점, 표준편차: .90점), 하지만 그러한 생각 중에도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을 구속된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었다(평균값: 3.45점, 표준편차: .96점). 이처럼 이혼 상황에 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을 편안하지도, 그렇다고 고되지도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평균값: 3.00점, 표준편차: .96점).

또한 이혼 전 과정이나 이혼 후 적응 과정이 힘들어서인지 이혼 남녀 모두 건강이 나빠져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성별로 차이가 있어 20, 30대 이혼 여성이 가벼운 신체 증상이나 과민하거나 불안한 심리 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4, p<.05$). 특히 '머리가 아프다'($t=-2.17, p<.05$), '기분이 가라앉는다'($t=-2.01, p<.05$),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t=-2.07, p<.05$), '잠들기가 힘들다'($t=-2.32, p<.05$), '자다가 자주 깬다'($t=-2.16, p<.05$), '의욕이 없다'($t=-2.19, p<.05$), '편히 쉬기가 힘들다'($t=-2.95, p<.01$), '쉽게 지친다'($t=-3.34, p<.01$) 등의 문항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이혼 여성은 이혼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사회활동이나 재혼 기회 등에서 이혼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성정현, 1998; 한경혜, 1993b; Hetherington, Cox, & Cox, 1978; Shapiro, 1996),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 전 시기나 이혼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인성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 30대 이혼 남녀는 가정경제불만족도나 생활만족도, 그리고 건강과는 무관하게 이혼 후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중간 수준의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혼 후 적응 수준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20, 30대 이혼 남성보다 이혼 여성이 이혼 후 일반적인 영역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t=-2.23, p<.05$).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중심으로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성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혼한 지 6개월에서 5년 이내에 있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20, 30대 이혼 남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 전 평균 1년 3개월의 교제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하였으며, 평균 5년 9개월의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전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이혼 전 1년 동안은 이혼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부부 및 친척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였고, 여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일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등 생활사건을 경험했다.

그리고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과정은 남녀 상관없이 거의 반수가 별거기간 없이 이혼을 하였고, 별거를 한 경우에도 평균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차례 별거를 한 뒤 이혼을 결정한다.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성격차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상실, 친척과의 갈등 등 부부간 갈등과 인적간 갈등이다.

그리고 동일한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편이며, 여성보다 남성이 협의이혼을 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이 이혼 당시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으며, 남성은 위자료를 주는 편인데 비해 여성은 위자료를 받는 편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 후 전개될 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예측하면서도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둘째, 이혼 후 적응 실태를 보면, 성별에 상관없이 과반수가 전 배우자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며,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인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혼 후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며, 이혼 후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빠졌다고 지각하고, 친정(본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주위 사

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인식한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다수가 양육권자이며,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자녀의 대부분이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 학생인 비교적 젊은 이혼자이지만 자녀문제를 두고 전 배우자와는 거의 의논하지 않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의논하는 등 자녀양육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 배우자를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좋은 부모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1/3 가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편 전 배우자의 부모역할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은 부모 역할에 만족한다.

그리고 20, 30대 이혼 남녀는 성별에 상관없이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에게 애착하지 않으며, 관계망이 축소되어 사회적 지원도 적어졌다고 지각한다. 그리고 힘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회관계망의 축소, 경제상태의 변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탓에 이혼 후 현재 중간보다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

이처럼 이혼 관련 선행연구들(노영주, 2001; 문현숙, 김득성, 2000; 박찬미, 서병숙, 1987; 성정현, 1999; 장혜경, 민가영, 2002; 한경혜, 김영희, 1994; Wang & Amato, 2003; Fisher et al, 1998; Kitson & Raschke, 1981; Ross, 1995; Shapiro, 1996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이혼 후 어려운 점을 20, 30대 이혼 남녀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선책이긴 하지만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와 적응이 필요한 생활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 후 이사를 한 비율이 높으며, 현재 집안 일도 남성의 경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면, 여성은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남성은 재혼 의사가 있으나 여성은 없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혼 후 생활변화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생활 변화를 나빠졌다고 지각하는 편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 후 인척 관계나 전 배우자의 친구와 멀어졌다고 지각한다. 또한 본인이 없을 때 여성은 자녀

를 돌보는 사람없이 혼자 두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남성은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이혼을 하였어도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구조나 사회 분위기 탓인지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 후 가정경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을 여성의 편에서 해체하기를 원해서인지 이혼에 대한 태도도 수용적이며, 의미있는 타자들이 본인의 이혼을 수용한다고 지각한다. 그리고 보통 수준이었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20, 30대 이혼 남녀의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극심한 갈등과 부부 및 친척관계, 경제 문제 등의 생활사건 속에서 부부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볼 여유도 없이 바로 이혼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혼 후에도 양금으로 남아있으며, 이혼 후 생활변화나 사회관계망의 변화에 따라 정서적으로는 좀 힘든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였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소였던 부부간 정서적, 인격적 측면이 부부간 결속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이재경, 2000; 이현승, 1999)의 주장이 이 연령층에서도 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이 부부간의 인연은 해소시켜도 부모-자녀간 친륜을 끊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부부간 양금이 협조적인 자녀양육이 필요한 시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혼 후 부모-자녀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으로 상호작용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적응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별로 차이를 보여, 결혼생활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여성들 편에서 이혼을 통해 벗어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사회구조 자체가 남성위주이기 때문에 이혼 여성들의 경우 이혼 후 남성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라는 생각에서 이혼 결정에 대한 후회 없이, 남성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제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20, 30대 연령층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인격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혼 남녀들이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역할 규정에서 벗어나 결혼생활을 정서적, 인격적 관계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혼을 했다는 사실보다 이혼 후 살아야 할 적응이 중요하며,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일 빈도가 높은 만큼, 이혼 후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축소된 사회관계망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교 자녀 등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의논할 문제가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양금 때문에 협조적인 자녀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이혼 후에도 정서적 측면을 치유하면서 이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같은 전문기관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이혼이 극심한 갈등과 생활사건 속에서 부부관계를 냉정하게 돌이켜볼 여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혼 전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한 이혼 숙려 기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주된 내용이 부모의 권리에 치우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정신적 복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성정현 외, 2001)처럼, 이혼 후 이혼 당사자의 적응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적응에 대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통해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들을 살펴볼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혼 후 적응 관

런 변수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20, 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기나 노년기 등 다른 연령층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적응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35-70.
-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71-109.
- 박찬미, 서병숙(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1999).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 93-116.
-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 육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20.
- 육선화, 성미애, 이재림(2002).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2), 65-92.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 사유의 변화. 가족과 문화, 11(2), 25-45.
-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가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회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 한경혜, 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논집, 6, 103-128.
-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관련 통계.
-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이혼가정의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허정원, 옥선화(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생활과학연구 23, 37-48.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Furstenbug, F. F., & Nord, C. W. (1985). Parenting apart; Patterns of childrearing after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93-904.
- Kitson, G. C. (1982). Attachment to the spouse in divorce: A scale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6), 379-393.
-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Y: Guilford Press.

- Kitson, G. C., & Raschke, H. J.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7.
- Kits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6), 913-92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8).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to crises: A double ABCX model of family behavior. In D. H. Olson & B. C. Miller(eds.). *Family studies review yearbook*. Beverly Hills, CA: Sage.
-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Seltzer, J. (1991).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who live apart: The father's role after sepa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79-102.
- Spanier, G., & Castro, R. (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 qualitative analysis, In G. Levinger & O. Males(eds.). *Divorce and separation: Context causes consequences*(pp.211-227), NY: Basic Books.
- Wang, H., & Amato, P. 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9.

(2004년 3월 18일 접수, 2004년 9월 22일 채택)